

담양신품종 딸기 '죽향', 동남아프리미엄 시장 수출길 올라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딸기 수출 상차식 진행 높은 당도·뛰어난 경도 수출 품종으로 주목

담양의 신품종 딸기 '죽향'이 말레이시아 시장 수출길에 올랐다. 담양군은 지난 2월26일 담양군 스마트베리팜에서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딸기 수출 상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

사와 최형식 담양군수, 김기성·박종일 전남도 의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스마트베리팜 서수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오르는 딸기는 담양에서 자체 개발한 죽향 600kg, 1,200만원 상당으로 동남아 프

리미엄 딸기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담양군이 육성한 '죽향'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높은 당도는 물론 뛰어난 경도 덕분에 수출 품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죽향은 네덜란드 등 유럽인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자체개발한 또다른 품종인 담향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럽에서 품종 등록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상차식에서 "우리 지역의 품질 좋은 딸기가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식탁에 오르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형식 군수는 "앞으로 농가 시설 현대화, 딸기모주 생산과 육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담양딸기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 펼쳐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화순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증가하자 연휴인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소각이 최근 3년 동안 발생했던 전국 산불 원인의 90%를 차지한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보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총동원해 산불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산림산업과와 읍·면 직원 20명이 분청 진화대원 30명과 함께 담당 마을

을 지정하고 마을회관을 찾아 팸플릿 1000부를 배포하며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을 당부했다. 군은 논·밭두렁 소각으로 해충은 11%밖에 소멸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이충이 피해를 봐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병해충 방제 목적의 소각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산 부산물은 논·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업기술센터가 대여하는 파쇄기를 대여,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천은 상생의 길' 주변 숲 정비 마무리



구례군은 본격적인 봄철 행락철을 맞이하여 천은 상생의 길 주변 숲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1개월간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의 도움을 받아 천은사 산문-수홍루-천은제 제방을 잇는 2.3km의 수변길 주변 고

사목 제거 및 가지치기, 덩굴류와 통행지장목 제거, 산물수집 등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천은사 수변길로 조성했다. 2019년 4월 '천은사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에 따라 천은사 인근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천은사 상생의

길은 장애인, 노약자도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이다. 산림욕을 즐기면서 자연·문화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수달 등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친화형 탐방로, 나무 교량 등도 마련되어 평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

협조와 동의 하에 수변길 주변 숲 정비를 실시했다. 김순호 군수는 "수변길 숲 정비 기간중 통행에 불편함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30여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이낸 상징적인 곳이니 만큼 누구나 쉽게 치유와 휴식을 취할

데크길 주변 숲 정비로 천은제 주변 경관개선 위험목 제거 등 탐방객에 안전·쾌적한 숲길 제공

다.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제대로 된 숲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방치되고 수변길 주변은 덩굴로 뒤덮여 있거나 잔가지들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경관개선과 보행자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구례군은 관계 기관의

수 있는 곳으로 거둬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천은사 산문개방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탐방객에게 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도로 관리하게 된 천은사-노고단간 도로변 숲 또한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청렴도 상위권 도약에 '올인'

청렴도 2등급 달성 목표 4대 중점과제 추진 계획

지난 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기록한 나주시가 청렴도 상위권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나주시는 2월2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찬권 부시장 주재로 29개 실·과 부서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종합

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 부서에서 발굴한 청렴도 취약분야 57개 개선시책이 보고됐다. 시는 '자율적 통제와 자정노력을 통한 청렴 나주 구현'을 비전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구조적·반복적 불공정 관행 차단', '청렴문화 확산 및 소통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패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 멘토-멘티제 운영 등 세부



시책 추진과 더불어 지난 해 청렴도 조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내부청

렴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곡성군, 읍면 대여 농기계 고장 걱정 끝

곡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순회수리팀이 순차적으로 읍면 대여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500여대 대여농기계 정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농업기계 순회수리 정비·점검은 곡성을 대여사업소를 시작으로 11개 대여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소형기종으로 영농철 대비 사전 정비·점검을 통해 적

기에 영농실현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 대여농기계 사전 정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도 간단한 정비 기술을 알려주어 대여농기계 운영·관리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기대된다.

곡성=양해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